

資料紹介

『蘇聯과 人民 朝鮮의 關係, 1945~1980 : 文書와 資料』

金翼熙
(서울大 政治學科 博士課程)

I.

『蘇聯과 人民 朝鮮의 關係, 1945~1980 : 文書와 資料』(모스크바 :《Nauka》出版社, 東方文獻 總編輯局, 1981)⁽¹⁾은 解放 이후 지난 35년간의 北韓과 蘇聯의 제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집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蘇聯側 일부는 北韓側一의 歷史資料들을 상당수 공개하고 있다. 이 책에 全文 또는 拔萃의 형태로 수록된 總 190개의 자료들은, 編輯者에 의하면 “소련과 인민 조선의 제 관계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p. 3)로서 兩國間의 條約 및 協定文書, 공동 코뮤니케, 外交覺書, 政治 指導者들의 연설, 서한, 電文, 法令, 聲明書, 呼訴文, 軍 報告書, 論文 등 모든 유형의 자료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중에서 33개의 자료는 蘇聯 國立中央 古文書局, 蘇聯 國防省 古文書局, 蘇聯 對外政治 古文書局으로부터 최초로 공개되는 것들이며, 나머지는 이미 兩國의 신문(특히 *Pravda* 紙), 소련외교문서집, 黨大會 자료집,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연설·논문집 등에 발표된 것들이다. 이 책의 속 表紙에는, 이 책을 출판한 공로로 소련 翰林院 동양학 연구소, 소련 閣僚會議 부설 고문서 총관리국, 소련 外務省 역사·외교 관리국이 勞動赤旗勳章을 받은 것으로 적혀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책은 다분히 政治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수록된 資料들의 내용을 분류하면 ① 8·15解放을 前後하여 北韓에서 활동한 蘇聯(軍)의 업적, 즉 “蘇聯(軍)에 의한 朝鮮의 解放” ② 北韓의 經濟, 文化,

(1) *Otnosheniia Sovetskogo Soiuza s narodnoi Koreei, 1945~1980: Dokumenty i materialy* (Moskva: Glavnaiia redaktsiia vostochnoi literatury izdatel'stva 《Nauka》, 1981).

技術 등 제 분야에 있어서蘇聯의 “견고한 友好와 형제적 협조”⁽²⁾ ③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과 美軍 칠수를 위한 蘇聯의 외교적 노력 및 北韓政策 지지 등으로 大別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련(군)에 의한 조선의 해방”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예컨대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 중 13편이 이에 해당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北·蘇間 협력관계를, 하나의 자료가 한반도의 平和의 통일과 美軍 칠수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朝鮮人民을 해방시킨 소련(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워진 解放塔(평양 모란봉 소재, p. 11), 소련군墓(청진시 소재, p. 15), 소련군에 수여된 메달(p. 59) 및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旗(p. 65)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한편 “소련(군)에 의한 조선의 해방”에 대한 이같은 소련측의 일관된 강조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 변화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난 35년간의 北·蘇間 外交的 親疎關係의 변화를 일면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이 책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 지도자들이 1957년까지는 解放에 있어서의 소련군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一例를 들면, 북한 最高人民會議 석상에서 행한 연설(1953. 12. 20)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소련은 장기간에 걸친 日本의 식민주의 壓制로부터 우리 人民을 해방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유리한 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고 근본적인 諸民主的 改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p. 99) (傍點 : 譯者)

그러나 위 문장중 傍點이 붙은 부분에 관하여 그는, 1960년에는 단순히 “조선인민의 해방”(p. 183)을, 65년에는 “朝鮮勞動黨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이 해방된지 20년”(p. 231)을, 그리고 79년에는 “우리 인민의 장기간에 걸친 民族解放 戀爭史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승리의 날”(p. 388)로만 언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북한정권의 수립 및 발전에 관해서도 이것이 오직 북한 단독의 힘만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와서는 약간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는데, “朝鮮解放” 35주년을 축하하는 소련측 電文에 대한 金日成의 答電(1980. 8. 15)은 “...이

(2) 數的으로는 이 내용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날로부터 35년전 우리 인민은 소련군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p. 398) (傍點 : 譯者)라고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이『소련과 인민 조선의 관계』는 北韓의 解放에 있어서 소련(군)의 활동을 설명해주는 諸實證的 역사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북한측 주장을 묵살하는 한편, 해방 이래 지난 35년간에 걸친 북한과 소련의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소련측에 더 밀착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 소개된 자료들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³⁾ 위에 언급한 諸古文書局으로부터 최초로 공개된 자료들중 해방직후의 소련의 對北韓政策 및 소련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번역한 것이다.

II. 資 料

•《朝鮮人民에 대한 極東地域 蘇聯軍 總司令官의 呼訴文》⁽⁴⁾ (1945. 8. 8)⁽⁵⁾

수십년간 여러분의 아름다운 祖國은 일본 군화의 重壓 아래에서 신음하고 지냈읍니다. 수백만의 조선인민은 민족적, 국가적 독립을 박탈당했읍니다. 일본의 獨占企業들이 조선의沃土와 花 피는 들판을 지배하고 있읍니다. 조선인민은 駆주림과 赤貧의 운명에 처해졌으며, 조선의 쌀, 철광석, 석탄, 금 등 모든 것을 일본 약탈자들이 전쟁의 더러운 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 나라로 반출하고 있읍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아시아의 인민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읍니다. 더 우기 일본인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게하고 여러분에게 무관한 이익, 즉 일본의 資本家와 地主의 이익을 위하여 괴를 흘리도록 강요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오래동안 참고 지냈읍니다. 일본 압제자에 대항하는 조선 애국자들의 투쟁은 매번 일본 사무라이의 총검에 의해 탄압되었읍니다. 조선 애

(3) 《자바이 칼軍, 제1·2極東方面軍, 태평양합대 소속 제군함 및 부대에 보낸 최고 총사령관의 명령》

(4) 이 호소문은 開戰(1945. 8. 9)에 앞서 日本軍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대량으로 공중살포되었던 心理戰用 傳單의 하나이다. 題名은 편집자가 임의로 붙인 것으로, 以下 같음.

(5) 자료의 작성일을 의미함. 以下 같음.

국자들의 피가 江에 넘쳐 흘렀습니다. 일본 냉혈한들은 이른바 1918년의 《쌀 폭동》과 1919년의 3月蜂起를 잔인하게도 진압하였습니다.⁽⁶⁾ 그들은, 조국의 자유 애국자로서 자신의 자존심 높은 머리를 속이기 원치 않은 모든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징벌하였습니다.

노예 상태의 암흑의 밤이 조선땅 위에 수십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解放의 시간이 도래했읍니다! 연합군과 함께 赤軍은 일본의 영원한 동맹국인 히틀러의 독일군을 완전히 분쇄했읍니다. 이제 西方에서 惡과 強壓의 근원은 박멸되었읍니다. 유럽의 인민들은 전쟁의 악몽과 독일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정의의 새로운 생활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東方에서의 악과 강압의 근원인 일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美·英·中國 군대의 해상·공중공격과 아울러 상승의 赤軍이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있읍니다. 赤軍의 정의의 칼이 일본 제국주의 위에 들어 올려졌고, 일본의 운명은 다하였읍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파멸할 것입니다!**

조선인들이여! 여러분의 압제자들에 대항하는 신성한 전쟁을 위하여 일어서십시오. 자신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여러분은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자유와 독립의 깃발이 서울 상공에 게양될 것입니다! 후방의 조선인들이여,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의 군사조치들을 좌절시키십시오. 빨치산 부대를 조직하십시오. 가능한 곳에서는 일본인들을 죽이십시오! 전선에 있는 조선인들이여, 무기를 일본인에게 향하고 일본 장교들을 죽이고 赤軍 쪽으로 넘어 오십시오! 조선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동의 敵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친구처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약탈자들에게 축음을!** (傍點: 原文)

극동지역 소련군 총사령관
소련 원수 Vasilevskii (pp. 5-6)

• 《두만市 및 웅기, 나진, 청진港 점령에 관하여 極東地域 蘇聯軍 總司令

(6) 原註에 의하면, 3·1운동이 《조선에서 일어난 소련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첫 번째 反響》이라고 되어 있다.

官 A.M. Vasilevskii 元帥에게 보낸 第1極東 方面軍 司令官의 戰闘報告》(1945. 8. 17)

1. 1945년 8월 17일, 제 1극동 방면군 제25군(제259 전차여단 선발대)에 의해 두만市가 점령되었음.

2. 청진항 지역에서 제25군 제393 보병사단이 1945년 8월 17일 아침에 태평양 함대 해군 상륙부대와 합류하였음. 그리하여 제1극동 방면군과 태평양 함대에 의해 조선沿岸의 일본해 항구들인 웅기, 나진, 청진이 완전히 점령되었음.

제 1극동 방면군 사령관

Meretskov

군사회의 위원

대장 Shtykov

방면군 참모장

중장 Krutikov (p. 7)

• 《자바이칼軍, 第1, 2極東 方面軍, 太平洋 艦隊 所屬 諸軍艦 및 部隊에 보낸 最高 總司令官의 命令》⁽⁷⁾ (1945. 8. 23)

8월 9일부터 자바이칼軍, 제1, 2극동 방면군 태평양 함대 소속 제군함 및 부대는 극동에서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행위를 시작하여 왔다. 강력한 포병사격과 항공공격의 지원 아래 우리軍은 만주 국경에 장기간 중심깊게 구축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였으며, 대성안링 산맥, 아무르강 및 우수리강을 제압하였다. 또한 만주의 중심에 맹렬한 공격을 전개하여 전방 500~950km 까지 진격하였고, 全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의 슈므슈 섬과 파라무시르 섬을 점령하였다. 일본關東軍은 반격이 실패로 끝난 후 저항을 중단, 무기를 버리고 우리軍에 항복하였다.

[中略]⁽⁸⁾ (譯者)

Iumashev 해군대장이 지휘하는 태평양 함대의 제군함과 부대는 북조선의

(7) 이 명령은 開戰 이후 8월 23일까지의 소련군의 전투성과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서, *Pravda*(1945. 8. 24일자)에 게재되었음.

(8) Malinovskii 원수 예하 자바이칼 군 및 Choibalsan 원수 예하 몽고군, Meretskov 원수 예하 제 1극동방면군, Purkaev 상급대장 예하 제 2극동방면군이 각각 몽고,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 일부를 점령하는 과정을 열거하고 있음.

웅기, 나진, 청진, 나남, 원산을 점령하였다.

연합군의 승리 획득을 기념하여 극동 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공훈을 세운 제부대 및 군함에 《싱안링》, 《아무르》, 《우수리》, 《하르빈》, 《무단장》, 《사할린》, 《쿠릴》, 《여순항》 칭호를 수여하며 훈장 포상을 한다. 오늘 8월 23일 22시에 우리 조국의 首都 모스크바에서는 만주, 남사할린, 쿠릴열도의 일부를 해방시킨 우리의 용감한 자바이칼 군, 극동방면군, 태평양 함대 및 Choibalsan 원수의 동고군을 위하여 조국의 이름으로 324개의 대포로부터 24발의 祝砲를 쏘 것이다. 극동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한 貴軍 휘하의 제부대 및 해군함대의 뛰어난 전투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전투에서 전사한 제영웅들에게 영원한 명예를. 상승의 赤軍과 해군함대에 전승을!

최고 총사령관

소련 대원수 I. Stalin (pp. 8-10)

- 『북조선에서의 第25軍의 軍事行動 결과에 관하여 第1極東 方面軍 參謀部가 極東地域 蘇聯軍 總司令官 參謀部에 보낸 戰鬪報告 중에서』 (1945. 8. 27)

[...] 5. 제25군은 敵軍 제122 및 제112보병사단을 무장해제시켰으며, 제88보병군단으로 하여금 조선의 오지로 진진을 계속케 하였다. 1945년 8월 26일 軍은 11,817명의 사병과 장교를 무장해제시키고 포로로 억류하였다. 이중 장교가 800명, 사병이 11,015명, 장성이 2명이었다. 1945년 8월 26일 13시에, 봉쇄된 敵의 南Duninskii 통신소 수비대가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수비대의 구성원과 전리품의量은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제88보병군단은 조선의 오지로 진격하여, 1945년 8월 26일 18시에 그 주력부대가 合水(길주의 서북쪽 50km 지역)에 도달하였다. [...]

제 1극동 방면군 사령관

소련 원수 Meretskov

제 1극동 방면군 군사회의 위원

대장 Shtykov

방면군 참모장

중장 Krutikov (pp. 10-12)

•《북조선 現地當局 및 住民과 蘇聯軍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極東地域 蘇聯軍 總司令官, 沿海州 軍管區 및 第25軍 軍事會議에 보낸 赤軍 最高總司令部의 訓令 중에서》⁽⁹⁾ (1945. 9. 20)

赤軍 군대에 의한 북조선 점령과 관련하여 최고 총사령부는 다음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한다.

[...] 3. 赤軍에 의해 점령된 조선지역에서 反日的인 민주적 제단체 및 정당의 조직을 방해하지 말 것이며, 그 작업을 도와줄 것.

4. 현지 주민들에게 다음을 설명해 줄 것.

a) 赤軍은 일본 약탈자들을 분쇄할 목적으로 북조선에 친주한 것이며, 조선에 소비에트 制度를 도입하거나 조선 영토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b) 북한 시민의 사유 및 공유재산은 소련군 당국의 보호하에 있다.

5. 현지 주민들로 하여금 평화적 노동을 계속하고, 산업 및 상업기업, 그리고 公營 및 기타 기업의 정상적인 작업을 보장하며, 소련군 당국의 요구와 명령을 이행하며,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조하도록 호소할 것.

6. 북조선 주둔군에게 기울을 엄격히 지키고,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지시할 것. 종교의식과 예배를 방해하지 말 것이며, 寺院 및 기타 종교시설들에 손을 대지 말것. [...]

I. Stalin

Antonov (p. 13)

•《북조선 羅津港에 대한 上陸部隊의 上陸(1945. 8. 12~15)에 관한 太平洋艦隊 參謀部의 報告 중에서》 (1945. 9)

[...] 나진 항구 및 도시의 탈취작전에 앞서서 웅기항 탈취작전이 있었으며(14시간 30분전), 또한 8월 9일~11일간에 걸쳐 육군 항공대와 함대 어뢰정에 의해 나진항에 정박중인 군함, 수송선 및 연안의 구축물에 대한 파괴작전이 수행되었다.

나진항은 우리 함대의 母基地에 직접적으로 근접한 곳에 경무장된 병력의 파견을 가능케 하는 북조선 일본함대의 機動基地이며, 일본으로부터 북조선

(9) 이 훈령은 소련의 對北韓 점령정책을 최초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에 수송되는 전쟁 및 기타 물자의 하역 항이다. [...]

상륙작전 以前인 8월 9일~11일 우리 전투기들이 418회에 걸친 출격을 통해 폭격을 감행하였는데, 그중 《IL-4》 및 《PE-2》가 199회, 《IL-2》 및 《IL-10》이 61회, 《IaK-9》가 158회 출격하였다. 그 결과 15척의 수송선과 한척의 초계정이 격침되었고, 철도역, 철로, 선박계류장이 파괴되었으며, 5개의 창고와 구축물의 일부가 소각되었다. 5개 고사포중대 및 2개의 소구경 고사포대의 사격이 진압되었으며, 한대의 《I-00》이 격추되었다. 어뢰정에 의한 습격작전의 결과로 11척의 수송선이 격침되었다. [...]

8월 13일 10시경, 해군보병 제358 독립대대가 나진 항구 및 도시를 점령했으며, 나진의 서쪽과 북서쪽에 있는 無名高地들의 방어진지를 점령했다. [...]

태평양 함대 참모장

해군 중장 A. Frolov

함대 참모부 작전부장

해군 대좌 N. Tsirul'nukov (p.14)

• 《북조선 清津港에 대한 上陸부隊의 上陸(1945. 8. 12~17)에 관한 太平洋艦隊 參謀部의 報告 중에서》 (1945. 9)

1945년 8월 9일 01시에 제 1극동 방면군 제25군은 공격을 개시하여 훈춘 요새지대의 방어선을 들파, 8월 11일 일몰경에 훈춘시를 점령하였으며, 두 만강을 도하하여 아오지 방면으로主攻을 가하면서 부대전선 앞에 훈춘 요새부대, 제112 보병사단과 경찰부대를 배치함으로써 공격을 전개하였다. [...]

지휘함대는 웅기, 나진항의 계속적인 점령을 위해 공격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띤 상륙부대를 청진항에 상륙시키는 것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 敵이 병력집결과 물자철수를 위하여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敵의 남쪽 퇴로를 차단할 것.
2. 羅南 요새지대의 공격을 위한 赤軍의 작전거점을 확보할 것이며, 북조선의 제항구에 함대 작전기지를 설치하여 沿海州 軍의 측면을 염호할 것.
3. 제한된 작전 반경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투수단을 이용키 위해, 청진항에 함대의 경무장된 병력의 機動基地를 설치할 것. [...]

제13 해군 보병여단이 청진 항에 상륙할 초기에, 제355 해군보병대대 제1,3 보병중대 戰線 앞의 敵은 我軍을 포위 공격하려고 시도하면서 완강한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제13 해군 보병여단 및 특공대의 시의적절한 상륙과 과감한 행동은 敵의 이같은 저항을 종식시켰다.

〔中略〕(譯者)

태평양 함대 참모장

해군 중장 A. Frolov

함대 참모부 작전부장

해군 대좌 N. Tsirul'nikov (pp. 15-16)

- 《북조선에 있어서 重工業 企業의 첫번째 移動에 관한 北朝鮮 蘇聯軍 司令部의 命令》(1945. 11. 27)

북조선의 주요 산업기업들의 가동에 관한 沿海州 軍管區 사령관 소련원수 Meretskov 동지의 명령 제00187/PO(1945. 11. 20)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관은 다음을 명령한다.

1. 軍후방부대장 Cherenkov 소장은 산업담당 고문 Zhelezov 대좌와 함께 주요 기업의 작업개시를 보장하고, 다음을 작성하여 본관에게 제출할 것.
 - a) 기업의 가동 일정표
 - b) 가동기간 및 정상작업시의 자재 및 기술의 공급계획과 조직
 - c) 在庫되어 있는 완제품과 반제품, 새로운 제품의 수송과 발송계획
2. 기업의 재건과 가동에 있어서 기술원조 및 조언을 위해 아래에 열거된 전문기술자들을 임명 할 것.

〔中略：기업 및 전문 기술자 명단 열거〕(原文)

3. 軍후방부대장은 식량, 연료, 교통 등 모든 형태의 보장을 통하여 기업의 가동과 정상작업에 필요한 일상의 실질적 도움을 줄 것. 軍 창고에 보관 중인 노획물자, 재산 및 설비 중에서 기업의 가동과 작업에 필요한 것을 前記人들에게 필요한 만큼씩 양도할 것.
4. 軍통신부대장 Boroviagin 소장은 직접 또는 부대를 통해, 가동된 대상 물과 軍참모부간의 전신 및 전화통신을 Zhelezov 대좌가 제출한 설계도에 따라 완전하게 보장할 것.
5. 軍재정부장 Karpov 중좌는, a) 은행을 조직할 때까지 제00187/PO 명

령의 목록에 의거하여 완제품 생산을 위한 선불금으로 간주되는 在庫 완제품들로써 기업의 재정을 보장할 것. b) 기업에 대한 자금지출 방법, 소비자와 완제품 구입 계산 방법, 재정보고 방법을 수립할 것. c) Zhelezov 대좌가 제출한 할당계획에 의거하여 가동기간 동안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 지도자들에게 事前 분배 할 것.

6. 제군단, 사단 및 예하대의 지휘관, 제도시·군·면의 사령관들은 기업의 가동 및 정상작업의 보장을 위해 현지에서 실질적 원조와 협조를 제공할 것이며, 필요한 물자, 교통, 연료, 식량의 분배 및 기업의 안전을 보장할 것.

7. 본 명령 제2항에 열거된 모든 지도자와 협력자들은 1945년 11월 29일 현지에 부임 할 것.

8. 산업담당 고문 Zhelezov 대좌는 가동된 작업의 진행에 관해 본관에게 매일 보고할 것.

제25군 사령관

대장 Chistiakov

제25군 군사회의 위원

소장 Lebedev

제25군 참모장

중장 Pen'kovskii (pp. 16-18)

• 『Ia. T. Novichenko 少尉의 功績에 관하여 蘇聯 武力 政治總局 7局次長 이 평양에서 政治總局에 보낸 報告』 (1946. 4. 2)

금년 3월 1일 (북조선) 평양시 역광장에서 거행된 1919년 反日 3월봉기 기념식에서 Iakov Tikhonovich Novichenko 소위(1914년生, Novosibirsk 지역, Dovolensk 지구, Travna읍 출신)가 영웅적 공적을 쌓았다. Novichenko 동무는 演壇의 수비 및 광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된 소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배치하고 마지막 명령을 하달한 다음, 연단 하층으로 올라갔다. 이때 金日成을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지도자들과 소련군 사령부 대표자들이 서있는 연단으로 한개의 수류탄이 투척되었다. Novichenko 동무는 연단에 서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수류탄을 집어 들고 옆으로 던져버렸으나, 수류탄은 그의 손안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폭발 결과로 Novichenko 동무의 오른팔이 절단되고, 양다리, 왼팔 및 왼쪽 눈

이 부상당했다. 현재 그는 회복중에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4월초에 퇴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諸社會 및 개인단체의 대표자들이 선물을 들고 병원으로 Novichenko 동무를 방문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에게 42통의 편지가 담지하였다.

〔中略：편지 내용 소개〕（譯者）

3월 1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거행된 만찬석상에서 南平양 인민위원회 의장은 전배를 제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교인으로서 나는 오직 하나의 종교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他人을 구출키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한 赤軍장교의 고결한 행동을 보았을 때 나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종교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바입니다.》(pp. 22-23)

- 《과거 日本政府 소유였던 諸產業企業, 水力發電所, 銀行 및 기타 對象物들을 북조선 蘇聯軍 司令部 대표단이 북조선 臨時 人民委員會로 양도하는 것에 관한 法令》(1946. 10. 30)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단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대표단 […서명자 성명 나열…]은 과거 일본정부, 일본의 自然人과 法人, 또한 조선인민의 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제기업의 국유화에 관한 1946년 8월 10일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법⁽¹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본 법령을 작성하였다.

I. 소련군 사령부 대표단은 북조선 영토에 설치된 제산업기업, 수력발전소, 변전소, 송신선, 배급소 및 배급망, 공장, 교통 및 통신설비와 자재, 은행 및 은행시설을 양도하였으며, 임시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이를 접수하였다.

II. 위 I 항에 제시된 모든 경제부문들의 간략한 특징(地方과 部門)에 따라 작성된 목록 및 별개의 대규모 기업들에 대한 법령은 본 법령에 온전한 형태로 첨부되었다.⁽¹¹⁾

III. 북조선 전역에 걸쳐 다음의 산업기업들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 양도된다.

(10) 이의 全文은 pp. 24-25에 게재되어 있음.

(11) 첨부서는 발표되지 않음.

1. 중공업 및 기계제작공장	81개,	1,382,761,000엔
2. 금속 및 비금속 광산	196개,	313,851,955엔
3. 석탄탄광	47개,	225,669,425엔
4. 연탄공장	23개,	13,629,245엔
5. 경공업 및 식품산업기업	407개,	373,636,520엔
6. 삼립 및 목재가공기업	77개,	36,197,531엔
7. 어업기업	73개,	67,254,301엔
8. 철도, 하천 및 해상수송		1,118,405,808엔 〔세부내용 생략〕(譯者)
9. 수력 발전소, 변전소, 송신선		717,900,000엔 〔세부내용 생략〕(譯者)
10. 전화·전신국 및 통신선		179,011,576엔
합계		4,431,316,361엔

이것에 건설이 중단된 수력발전소들의 가격 295,000,000엔을 합하면, 총 합계는 4,726,316,361엔이다.

IV. 모든 기업의 평균가격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戰前가격으로 산정되었다. 고정자본은 매년의 생산투자 및 지출로 산출되었다.

V. 열거된 기업들 이외에, 별도의 법령에 의해 북조선 중앙은행과 58개 경성은행 지점이 계정잔액 만큼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 양도된다.

본 법령은 러시아어 및 조선어로 각각 3부씩 작성되었다. (pp. 25-27)

- 《本國送還된 日本人이 북조선 영토에 남겨 놓은 財產을 북조선 蘇聯軍 司令部 代表團이 北朝鮮 人民委員會로 양도하는 것에 관한 法令》(1947. 10. 21)

북조선 소련군 대표단과 북조선 인민위원회 대표단 […서명자 성명 나열 …]은 아래와 같이 본 법령을 작성하였다.

1. 소련군 사령부 대표단은 본국송환된 일본인이 북조선 영토에 남겨 놓은 동산 및 부동산, 가정일용품들을 양도하였으며,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였다.

2. 위 1항에 제시된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가정일용품들의 간략한 특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은 온전한 형태로 본 법령에 첨부되었다. ⁽¹²⁾

(12) 첨부서는 발표되지 않음.

3. 북조선 전역에 걸쳐 다음의 재산이 1945년 가격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에 양도된다.

- a) 합계 273,894,000엔 상당의 가옥 및 여관 33,249채
- b) 합계 370,996,000엔 상당의 상점, 창고, 차고, 제조소 및 학교, 병원, 공중목욕탕 등 21,829채
- c) 합계 107,694,000엔 상당의 상수도 및 하수도
- d) 합계 168,900,000엔 상당의 설비 및 자재
- e) 합계 27,731,000엔 상당의 가정일용품
- f) 합계 31,985,000엔 상당의 가축 23,073마리
- g) 합계 47,640,000엔 상당의 관개시설 146개
- h) 합계 43,733,000엔 상당의 미완성 관개시설 39개

총합계는 1,072,573,000엔이다.

4. 본 법령은 러시아어 및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다. (pp. 31-32)

- 《日本의 지배로부터 朝鮮을 해방시킨 공적으로 太平洋 艦隊 將兵들에게 北朝鮮 勞動黨 中央委員會 旗를 포상한 것에 대한 太平洋 艦隊 參謀部의 調査書》(1649. 2. 22)

1948년 12월 10일의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조선인민과 소련인민과의 영원한 우정을 표시하고 조선이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소련 태평양 함대 장병들에게 旗가 수여되었다.

旗의 前面은 《소련 武力의 일원으로 일본 약탈자들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킴에 있어서 위대한 공적을 남긴 소련 태평양 함대 장병들에게,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라는 내용이 刺繡로 銘刻되어 있다. 旗의 뒷면은 러시아어 원문에 해당하는 조선어 원문이 자수로 명각되어 있다.⁽¹³⁾

旗 수여식은 1948년 12월 18일 (북조선) 청진시 운동장에서 태평양 함대의 수병, 하사관,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박현인 여사(노동당 위원)가 해군중장 Fadeev(태평양 함대 대표)에게 旗를 수여하였다. 수여식에는 조선측에서 청진시 당국의 대표단(12명)이 참석하였다. 旗는 1949년 1월 18일 블라디보스톡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전달되었으며, 이후 해군

(13) p. 65에 旗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음.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었다.

태평양 함대 참모장

해군 소장 Fedorov (pp. 64-66)

- 《朝鮮人民에 대한 蘇聯의 식량원조에 관하여 蘇聯 閣僚會議 議長이 朝鮮 人民 民主主義 共和國 内閣首相에게 보낸 電文》 (1952. 4. 14)

본인은 조선인민이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베리아에는 5만톤의 소맥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맥분을 조선인민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의 同意를 타전하십시오. 우리는 귀하의 지시에 따라 즉각 이 소맥분을 보낼 것입니다. ⁽¹⁴⁾ 再拜.

I. Stalin (p. 87)

(14) 1952년 4월 16일자 답신에서 김일성은 이 결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 결정이 『미국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선에 대한 소비에트 인민의 사심없는 형제적 원조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함. (原註)